

그들에게 콘돔을 허(許)하라

김은남 / 시사저널 문화팀장

일마 전 텔레비전 시트콤을 보다가 잠시 어리둥절한 일
이 있다. 성인용 시트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밤중
에 방송되는 그 시트콤은 아슬아슬하되 낮 뜨겁지 않은 성적
농담과 성적 표현이 감칠맛 나게 녹아 있어 평소에도 즐겨 보
던 프로그램이었다.

그런데 문제의 그 날, 내 눈을 거스른 것이 콘돔 에피소드
였다. 내용인즉 미혼인 남동생과 자취를 하고 있는 누나가 남
동생 책상 서랍에서 콘돔을 우연히 발견하고 펄펄 뛰는 것이
였다.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누나는 결국 남동생한
테 직접 호통을 치고야 만다. “네가 왜 이런 걸 갖고 다녀. 당
장 압수야!” 문제는 이 남동생이 미성년자냐 하면 그것이 아
니라는 것이다. 남동생은 이미 대학까지 졸업한 20대 중반의
건강한 총각이다. 그렇다고 남동생이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것
도 아니다. 원조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니다. 그에게는 직장을
다니는 번듯한 애인이 있다. 누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.
그런데 왜?

나는 이 날 우리 사회가 성(性)에 대해 갖고 있는 이중성을
다시 한번 확인한 듯해 입맛이 씁쓸했다. 포르노그래피·음란
사이트·러브호텔 따위 성적인 자극이 주변에 널려 있는 사
회. 광고마다 유행가마다 ‘섹시하라’ ‘네 욕망에 충실하라’ 고
주문을 불러넣는 사회. 그럼에도 콘돔을 사용하자고 당당히
요구하는 여자(남자)는 ‘달을대로 달은 여자(남자)’ 취급을 하
는 사회. 그 결과 낙태율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십여
년째 보유하고 있는 사회.

그나마 나의 감감함을 깨뜨려 준 것이 부산대학교 여학생
들이었다. 이들이 지난 5월 22일 저지른 ‘깜찍한 도발’에 나

는 그만 뒷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다. 이날 부산대
총여학생회는 학내 캠퍼스에서 이름하여 ‘콘돔 서약식’이라
는 것을 거행했다. 서약식이라고 해서 무슨 거창한 행사는
아니었다.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각자가 “나는 앞으로 성
관계시 반드시 콘돔을 사용할 것을 맹세합니다”라는 서약서
를 작성하고, 대형 캔버스에 손 도장을 새기는 퍼포먼스가
고작이었다.

이들은 기존의 순결 서약식에 안티를 건다는 뜻에서 콘돔
서약식을 구상하게 됐다고 했다(순결 서약식은 지금도 중고등
학교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). 서약식을 앞두고 만난
한 여학생은 순결 개념의 허구성을 이렇게 매섭게 꼬집었다.
“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순결이라는 게 결국에는 질 삽입이
기준 아닌가요? 질에 남자 성기가 삽입되는 순간 여자는 순
결을 잃는다는 식인 거죠. 그렇다면 원치 않는 강간을 당한
여성은 순결을 잃은 것이고, 온갖 애무 행위를 다하고도 질에
성기만 집어넣지 않으면 그 여성은 순결한 여성인가요?”

나는 이들의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. 미혼의
여성들이, 그것도 보수적인 지역 사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
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. 솔직히 얘기해 보자. 기혼 여
성이라 한들 남편에게 피임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여성
이 이 땅에 몇이나 되겠는가.

피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자기 몸을 정확하게 이해
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. 누가 그랬던가. 몸은
정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나를, 그리고 상대를 전 인격적으로
사랑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콘돔 서약식에 동참하자. **PEEK**